

# 트럼프 행정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韓 등 9개국 유지, 태국 새지정  
원화 약세에 “한국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 부합하지 않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동행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증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주요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에 기록한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 “2024년 4분기에는 한국 원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주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 이었다”며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으로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려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증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도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지정 시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증가해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이는 견전 동기 4.3%에서 상승한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이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상품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스페이스X-xAI 합친다”…로봇·AI 우주기업 나오나

네바다주에 법인 2개 설립  
구체적 계획·조건은 미공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x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언하고 있다.

梅南日報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나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두 기업이 올해 xAI 주식을 스페이스X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으며, xAI와의 기업 결합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를 세 회사에서 모두 최고 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실제로 미국 네바다주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두 곳이 설립됐다.

네바다주 기업등록 사류에 따르면 ‘K2 MERGER SUB’라는 주식회사와 ‘K2 MERGER SUB 2’라는 유한책임회사

(LLC)가 지난 21일 나란히 설립됐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에는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유일한 임원 명단에 올라가 있고, 유한책임회사에는 존슨 CFO와 스페이스X 법인이 경영진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에는 이들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xAI와 합병하게 되면 로봇과 AI 모델을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명에 합병(Merger)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합병 절차에 보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머스크 CEO는 최근 AI 훈련과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마스크가 “화성 식민지 수송선이 운항할 때까지 상장은 없다”는 의사를 고집하다가 생각을 바꿔 스페이스X의 IPO에 나서는 것도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지금 조달 때문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